

# 2021년도 3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자	근로자위원 간사	추 희 연
	사용자위원 간사	심 희 경

회의일시	2021. 9. 28.(화) 11:00~12:00
회의장소	비대면 화상(zoom) 및 대면회의(다함께실) 병행
참 석 자	-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3명(강진아, 전현정, 심희경), 근로자위원 3명(임은주, 추희연, 현금숙) 전원 참석
개 회	- 사용자위원 3명, 근로자위원 3명 전원 출석 -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
보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분기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한 이행보고 (2021년도 2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도 2분기 노사협의회 의견에 따른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함.</li> </ul> </li> <li>2. 2021년도 3분기 사업 실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자료 순서에 따라 2021년도 통합가족지원사업 및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현재 사업실적, 달성도,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함.</li> </ul> </li> <li>3. 2021년도 3분기 주요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주관 '2021 서울가족사업 공모전' 대상 &amp; 우수상 동시 수상 보고</li> <li>▶ 2021년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li> <li>▶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 보조사업 &lt;서울시·도봉구 합동점검&gt; 보고</li> <li>▶ 2021년도 자체 평가 및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li> <li>▶ 방역관리 현황 보고</li> <li>▶ 직원의 근무환경 차별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모색 활동 보고</li> <li>▶ 조직현황, 구성, 업무 및 직제 보고</li> </ul> </li> </ol>
의결사항 및 취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아이돌보미에게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명절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도봉구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희망함(현금숙 위원).</li> <li>- 최근 본 기사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신청하면 정해진 장소로 방문하여 1:1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좀더 알아보고 수강장소를 제공하거나 추후 교육을 연계하고자 하니 돌보미 선생님들의 관심 바람(강진아 위원).</li> <li>- 다문화 방문교육서비스가 코로나 시기 휴업으로 인해 배움지도사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일부 대체되었고 이후 재정비 과정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음. 유사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아동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센터에서 유사 서비스 수</li> </ul>

	<p>해자가 겹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주셨으면 함(임은주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내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함에도 보직간 급여 차이로 사기가 저하되고, 사업의 연속성에도 차질을 빚게 됨.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급여 차이를 일부 보전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불가능한지 궁금함. 특히 결혼이민자 보직은 오래 근속해도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 때문에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한 상황임. 이에 대해 센터에서 노력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변화가 많지 않아 답답한 심정임(추희연 위원).</li> <li>- 2017년부터 서울시센터 아이돌봄 전담인력들이 모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서울시에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그 결과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는 처우개선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사업 종사자들이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급기관인 지자체나 서울시, 여가부 등에서도 호응해준 결과인 만큼, 특성화사업 종사자 등 처우가 동일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같은 의견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지금처럼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림(심희경 위원).</li> <li>- 말씀해주신 것처럼 센터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다른 사람도 쉽게 차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므로 평등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직원들이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주신 의견을 모아 센터 운영위원회는 물론 상급기관 등에 꾸준히 전달하겠음(전현정, 강진아 위원).</li> </ul>
<p><b>폐 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서에 따른 진행 후 폐회</li> </ul>
<p><b>기타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회의사진**

